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09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이 차에 탄 뒤 바로 다음 장면에서 목적지에 내리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는다. 그가 복잡한 도심에서 주차할 곳을 우연히, 그리고 매우 쉽게 찾는 장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실상 어느 관객도 그와 함께 차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야기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영화상의 생략을 기꺼이 수용한다. 극적인 전개를 위해 극단적인 사건을 설정하거나 연인이 이별하는 장면에서 작중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절한 음악을 삽입하는 것, 카메라의 움직임이 유발하는 현장감과 정서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사실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영화의 재현 방식에 반응해서 영화 속 내용을 현실처럼 보는 데에 동의함을 뜻한다. 영화 속 내용은 실제 현실과 같지 않다. 우리는 영화가 현실의 복잡성을 똑같이 ㉢모방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영화 역시 굳이 그러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이렇게 관객과 감독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 합의를 ‘영화적 관습’이라고 한다. 영화적 관습은 영화사 초기부터 확립돼 온 산물로, 관객과 감독의 소통을 돕는다.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관객은 영화적 관습을 익히고, 감독은 그것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친숙함을 제공한다.

확립된 관습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누벨바그 감독들은 고전적인 영화 관습을 파괴하며 영화의 현대성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불필요한 사건을 개입시켜 극의 전개를 느슨하게 만들거나, 단서나 예고 없이 시간적 순서를 뒤섞어 사건의 인과 관계를 ㉤교란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기만족적이고 독창적인 미학적 성취를 위해 영화의 고전적인 관습을 파괴하였다.

상업 영화에서도 부분적인 관습 비틀기가 ㉥수시로 일어난다. 이는 흥행을 목적으로 오락적 쾌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누벨바그의 관습 파괴와는 차이가 있다. 가령, ㉦근래 액션 영화의 감독들은 악당의 죽음으로 갈등이 해소 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악당을 다시 살려 내어 갈등을 또 한 번 증폭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처음 이러한 관습 비틀기를 접한 관객들은 당혹스러웠겠지만, 일단 여기에 익숙해지면 느긋하게 ‘악당의 귀환’을 기대하게 된다.

파괴된 관습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를 잡는다. 따라서 영화적 관습은 고정된 규범일 수 없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화적 관습은 관객과 감독이 소통하는 데 기여한다.
- ② 영화 속 현실은 영화 고유의 재현 방식을 통해 변형된 현실이다.
- ③ 영화적 관습은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고정된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
- ④ 관객은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영화적 관습에 익숙해진다.
- ⑤ 새로운 재현 방식의 시도와 수용은 영화적 관습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2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영화의 현대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였다.
- ② ㉤은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관객의 기대 심리를 역이용하기도 하였다.
- ③ ㉣은 ㉤과 달리 관객에게 오락적 쾌감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 ④ ㉤은 ㉣과 달리 관습적인 재현 방식에 전면적으로 도전하였다.
- ⑤ ㉣과 ㉤ 모두 전통적인 영화적 관습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83. 거리(낮)  
지연, 설레는 표정으로 뛰어온다. ㉠지연이 큰길가로 나오자마자 택시가 와서 선다.

S#84. 놀이 공원 인근(낮)  
㉡준호,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다. 구급대원들이 준호를 급히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카메라, 흔들리며 상황을 보여 준다.)

S#85. 놀이 공원 입구(늦은 오후)  
지연,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한 얼굴로 서성인다. ㉣공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입구가 닫히고, ‘폐문’이란 안내판이 걸린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중략)

S#107. 병실(낮)  
지연, 꽃병에 탐스러운 장미꽃을 꽂고 있다.  
  
지연: (꽃을 꽂으며) 며칠 있으면 퇴원이네.  
준호: 그래, 그동안 힘들었지? 고마워, 지연아.  
  
준호, 지연의 손을 다정하게 잡는다. ㉤마주 잡은 두 손이 결혼식에서 반지를 끼워 주는 두 손과 중첩된다.

S#108. 몇 개월 후 결혼식장(오후)  
지연과 준호, 하객들의 축복 속에 활짝 웃으며 결혼식을 마치고 퇴장한다. (카메라, 점점 위로 올라간다.)

- ① ㉠은 현실에서는 우연에 해당하지만 영화에서는 당연시되는 설정이군.
- ② ㉡는 극적인 전개를 위해 현실에서 자주 겪기 힘든 상황을 설정한 것이군.
- ③ ㉢는 긴박한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제시하기 위한 카메라 기법이군.
- ④ ㉣는 등장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작중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삽입한 것이군.
- ⑤ ㉤는 장면 연결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을 생략한 것이군.

27.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 ②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③ ㉢: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 ④ ㉣: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혼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하게 함.
- ⑤ ㉤: 일정하게 정하여 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름.